

단순하고 부드러운 레이아웃... 인스타 등 앱과 한 몸처럼

☞ 체험기 윈도우11 프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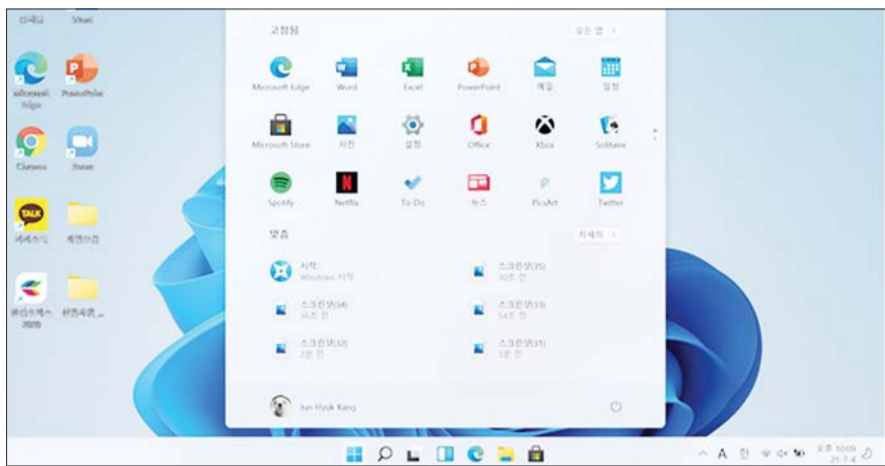
창·아이콘 등 전체적으로 동글어 스마트폰 앱과 호환 기능 강화
위젯에 AI 접목, 음성인식 UP
디자인 외에는 차별점 다소 부족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11을 공개했다. 2015년 7월에 발매된 윈도우10 이후 무려 7년만의 신제품이다. 윈도우11의 정확한 출시일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연말에 출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11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미리보기 빌드를 인사이더 프로그램을 통해 테스터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사는 지난 3일 테스터 등록을 완료했고 윈도우11을 미리 설치해 사용해 볼 수 있었다.

◆첫 인상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설치 후 처음 느낀 점은 디자인이 크게 변했다는 점이다. 윈도우11은 전체적으로 각지 않은 디자인이 특징인데 윈도우 창을 켜 놓고 끝을 보게 되면 모서리가 동글동글한 것을 볼 수 있다.

시작 메뉴는 이전 버전들과 다르게 중앙에 위치한다. 작업표시줄의 아이콘들도 중앙으로 배치됐다. 이러한 설정



Window11 시작 구동화면.

/강준혁 수습기자

들은 기존 윈도우10처럼 왼쪽 정렬로 되돌릴 수도 있었다.

시인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있었는데 작업표시줄에 앱이 실행 중일 때 하단에 얇은 바가 생기던 것이 여백이 생기고 굵어지면서 좀 더 잘 보이게 됐다.

제어센터 디자인도 크게 변경됐다. 밝기·소리·블루투스 등의 설정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됐다. ‘Win+A’ 단축키를 누르면 바로 제어센터가 나오게 변했는데 이 또한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전체적인 성능도 윈도우10 대비 15% 상승했다.

◆앱과의 호환 기능이 강화된 OS

윈도우11이 윈도우10과 차별화되는

점은 앱 호환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에서만 제대로 구현이 가능하던 인스타그램 등 앱이 컴퓨터 크기에 맞게 조절됐고 검색, 메시지 보내기 등 앱 내부의 콘텐츠 이용 기능도 강화됐다.

컴퓨터 내장 앱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 사전 설치돼 있던 스카이프(Skype) 앱이 제거됐고, 채팅 앱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가 수행하던 기능은 채팅 앱에 통합됐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없어도 상대방을 초대해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안드로이드 또는 iOS 장치에 SMS를 발송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앱의 화면을 상대방

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

또 윈도우11은 위젯에 인공지능(AI)을 접목시켜서 사용자에게 따라 최적의 콘텐츠를 구현한다. 위젯의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다. 음성 인식도 기능이 강화돼 음성 받아쓰기 기능을 실행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icrosoft Word)에 음성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 구두점도 자동 인식해 삽입해준다.

윈도우10에서는 서드파티 앱(앱스토어에서 추가 설치하는 앱)을 통해 카메라를 설정해야 했지만, 윈도우11에선 운영체제에서 직접 카메라 설정을 조작할 수 있었다. 또 웹캠이 작동 중일 때 작업표시줄 시스템 아래에 아이콘이 웹캠이 켜져 있다고 표시해준다.

기존에 불편했던 붙여넣기 기능도 개선됐다. 붙여넣기를 할 시 ‘일반 텍스트로 붙여넣기’ 설정을 추가해, 서식이나 글꼴을 따오는 일 없이 글의 내용만을 복사해 클립보드 관리자에 붙여넣을 수 있게 됐다.

◆“디자인 말고 바뀐 게 없다”는 비판, 정식 출시 때 어떻게 개선될까

윈도우11과 윈도우1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자인이다. 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프리뷰 버전만 놓고 비교했을 때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큰 개선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특히 앱과의 연동성 강화, 복사 붙여넣기 기능 개선 등은 기존 윈도우10을 업데이트해서 개선했을 수 있는 기능들이다.

또한 이번 윈도우11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안드로이드 앱을 컴퓨터에 깔 수 있게 됐다는 점인데 프리뷰 버전에서는 아직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쉬웠다. 다만 테블릿PC에서 노트북 모드를 사용할 때 조차 앱 호환성에 오류가 있는 만큼 정식 발매 때도 제대로 구동될지는 의문이다. 위젯도 오류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뉴스 위젯을 실행해도 스포츠 기사는 볼 수 없었으며 나머지 기사들도 화면에 나타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다. 윈도우11 커뮤니티의 다른 사용자들에 따르면 뉴스 위젯 내용을 아예 볼 수 없었다는 후기도 있었다.

윈도우11 프리뷰를 이용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 정식 출시될 때는 개선이 필요해 보였는데,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기능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11을 공개하면서 프리뷰 테스터들에게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더욱 정교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준혁 수습기자 junhyuk@metroseoul.co.kr

“세계 최초 로봇빌딩”... 네이버, 특허 출원

‘제2사옥’에 22건 특허 출원 로봇·사람 공존하는 친화형 건물

네이버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건물인 ‘제2사옥’에 대해 2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현재 네이버 그린팩토리 옆에 건축 중인 제2사옥은 로봇·자율주행·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네이버의 미래를 이끌 모든 기술들이 융합되고 연결되는 ‘테크 컨버전스(Technological Convergence) 빌딩’으로, 연내 완공 예정이다.

제2사옥은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으로 제어되는 로봇이 사람과 공존하는 건물로,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로봇 전용 통로, 충전공간 등 로봇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며, 사람을 배려하는 로봇 주행, 다수 로봇의 이동 상황을 고려하는 로봇 제어, 사고 방지 기술, 5G 특화망을 통한 초저지연 통신과 제어 등과 같은 기술적 요소들이 반영된다.



네이버 제2사옥에 들어갈 네이버랩스 로봇 ‘AROUND D’.

/네이버

수많은 자율 주행 로봇이 사람과 공존하는 공간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기술이 포함되며, 이러한 빌딩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네이버는 전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이 적용된 빌딩’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네이버는 ▲ARC(브레인리스 로봇 기술이 적용된 네이버만의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와 관련해 약 97건 ▲앰비텍

스, 어라운드 등 ARC로 제어되는 실내 서비스 로봇 및 편의 기술과 관련해 76건 ▲로봇 친화형 빌딩에서 실제 로봇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실내 지도 제작 기술, 실내 지도 업데이트 자동화, 장애물 인식 기술 등 다양한 제반 기술에 대해 42건의 기술 특허를 출원,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출원한 건물에 대한 22건의 특허까지 포함하면 네이버는 로봇 친화형 건물 구축과 관련한 약 237건의 특허를 출원한 셈이며, 준비하고 있는 출원도 있어 특허 출원 건수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네이버 기술들이 집약되는 제2사옥은 자율주행 로봇을 비롯해 다양한 로봇과 AI 기반의 다양한 융합 솔루션이 회사 업무 시스템과 연계된다. 얼굴인식을 통한 공간 출입부터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딜리버리 등 직원들은 공간 그 자체가 비서가 되는 새 업무 공간을 체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삼성중, LNG운반선 3척 6545억에 수주

올 목표 수주액 71% 달성

삼성중공업이 올 하반기 시작과 함께 추가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삼성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18만m³급 LNG운반선 3척을 총 6545억원에 수주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들 선박은 2024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LNG운반선은 메탄 슬립을 감소시키고 연비가 대폭 향상된 MAN ES의 차세대 LNG 이중연료엔진(ME-GA)이 탑재될 예정이다. 메탄 슬립은 LNG 주성분이자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이 불완전 연소돼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 선박과 바닷물 사이의 마찰저항을 줄여 연비를 높이는 삼성중공업의 공기유통시스템인 세이버에어II(SAVERA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ir II)와 경제·안전 운항 스마트십 솔루션 에스베슬(SVESSEL)도 적용된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총 51척, 65억 달러를 수주하며 목표 91억 달러의 71%를 달성했다. 특히 LNG운반선 6척, 컨테이너선 38척, 원유운반선 7척 등 다양한 선종을 수주하며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S전선, 장외시장 자사주 매입 실시

8일까지 주식 양도 신청

LS전선이 K-OTC(장외) 시장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8일까지 주식 양도 신청을 받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 주식은 수년간 최초 공모가 대비 평균 65% 수

준에 머물렀다. 회사 측은 주주들에게 묶여 있던 자산의 유통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기업공개(IPO)를 기다려 온 주주 보상 차원에서 주당 매수 가격은 6만1570원으로 책정했다. 2010년 최초 공모가는 5만7500원이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LS전선은 향후 해저 케이블과 전기차 부품 등 성장을 위한 투자가 마무리되고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IPO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LS전선 관계자는 “장의 거래 주식은 유동성이 낮아 현금화가 어렵다”라며 “주주들의 주식이 장기간 묶여 있어 자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KT, 경기도 학생 AI 등 진로탐색 지원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

KT가 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KT는 자유학년제 참여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하고, 진로체험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T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으로서 보유한 미래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연구소, AI 호텔 견학과 AI 로봇 등 미래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 라이브 참여 방식의 소그룹 견학과 인공지능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I 코딩 교육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KT IDC(인터넷데이터센터) 견학과 AI를 결합한 빅데이터 기술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